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안강태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051)245-7551~3 / FAX:245-7550
인쇄처: (주)동방인쇄
Tel:(051)636-9477 / FAX:636-9478

가을 행사 다채롭게 이어져

- 알찬 결실 맺도록 모두가 동참 -

10월 7일 기별대항 야구대회 개막 첫날 오프닝게임 연합 A팀 승리

본부동창회(회장 안강태·11회·대전조선 대표이사) 가을 큰 행사인 기별대항 야구대회(10월 7일)와 용마골프대회(10월 29일), 용마산악 등반대회(11월 11일), 용마바둑대회(11월 25일·개인전) 등의 개최 일정이 확정되어 전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제39회 동창 회장기 쟁탈 기별대항 야구대회(주최:본부 동창회, 주관:경야회)가 10월 7일(일) 오전 10시 경남고 운동장에서 입장식을 시작으로 11월 3일(토) 결승전까지 총 4주간에 걸쳐 각 기수별 대항이 벌어진다.

올해 대회는 연합 A·B팀 및 변의 경기팀 제14, 17회와 29개 단일팀(제19~49회) 등 모두 33개 팀이 출전, 예년보다 3개 팀이 더 출전하여 어느 해보다 치

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49회가 올해 처음으로 대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어 막내 기수가 어떤 파이팅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회 운영은 경야회, 경총회 회원들이, 경기진행은 경야회 회원들이 맡는다. 단일팀 모든 경기는 7회전으로 경남중 야구장에서 10게임, 경남고 야구장에서 18게임을 치른다. 전 게임 토너먼트 빅다운제(콜드게임제 없음)이며, 핸디는 2~3회 1점, 4~5회 2점, 6~7회 3점, 8~9회 4점... 등이다.

한편 지난 10월 7일 치러진 대회 첫날은 입장식에 이어 오전 10시 40분부터 이벤트 행사로

장타대회가 열렸고, 여성 용마가족 대상 소프트볼 릴리보내기 및 릴레이를 가진 후연합 A·B팀(5회전) 경기를 가져 17회가 주축이 된 A팀이 14회 중심으로 구성된 B팀을 11:5로 누르고 승리하였다. 오후에 시작된 제 28회 - 제32회 게임은 게임도중 우천으로 인하여 5회말까지의 경기를 정식게임으로 인정, 13:8로 28회가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이날 장타대회는 재학시절 야구선수였던 동문을 제외하고



모든 동문이 참가, 선배 순으로 1타석씩 쳤으며 장타를 친 동문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되었다.

그리고 연합팀(1회~18회) 동문은 도시락이, 참석 동문·가족에게는 음료수, 맥주 등이 제공되었고, 기수별 참석 인원수에 따라 상금도 주어졌다(1위 20만원, 2위 15만원, 3위 10만원, 4위 5만원).

▲장타상-장정석(33회), 김광수(36회), 김영진(40회), 임태영(40회)

▲개인상 △우수선수상: 조규태, 이범열 △우수투수상: 이효근, 조진웅 △수훈상: 최봉현, 김시영 △타격상: 전재수, 정연회 △감투상: 최총락, 심상욱 △인기상: 김영식, 김준위 △미기상: 강원수, 이재준(17회 이범열동문 자제) △공로상: 최경열, 성윤환 △특별상: 김의웅, 김대준 △감독상: 이승오, 이기일

▲참가상 △1위: 40회 △2위: 32회 △3위: 35회 △4위: 33회

용마골프 10/29(월) 티업

- 부산C.C에서 55개조, 출신원상 벤츠 승용차

제10회 본부회장배 쟁탈 기별대항 용마골프대회가 오는 10월 29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열려 기수별, 개인별로 치열한 열전이 예상된다.

올해 대회는 47개 동기회(제 5~51회) 220여명이 55개조로 나눠 참가하며 예년과는 달리 4개 홀에서 동시 티업하여 경기 진행 시간이 많이 단축될 전망이다.

조 편성은 동기회별 관계없이 핸디에 따라 싱글(1~9), 로우(10~12), 중간(13~16)끼리 시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조 동문 경우 희망 동반자같은 동기회 선수 또는 원하는 선수끼리 대전하게 된다.

경기는 단체전·개인전·시

니어부·여성부로 나눠 치른다. 단체전(스트로크 방식) 경우 각 동기회 선수 중 베스트 3명의 기록을 합산하여 우승·준우승·3위까지, 개인전(뉴페리어 방식)은 우승·메달리스트·준우승·3~5위·니어핀·롱기스트·행운상까지 시상한다.

시니어부는 제1~15회 선수끼리 붙여 우승·메달리스트·준우승까지, 여성부는 동문 부인만 출전해 우승·메달리스트·준우승까지 시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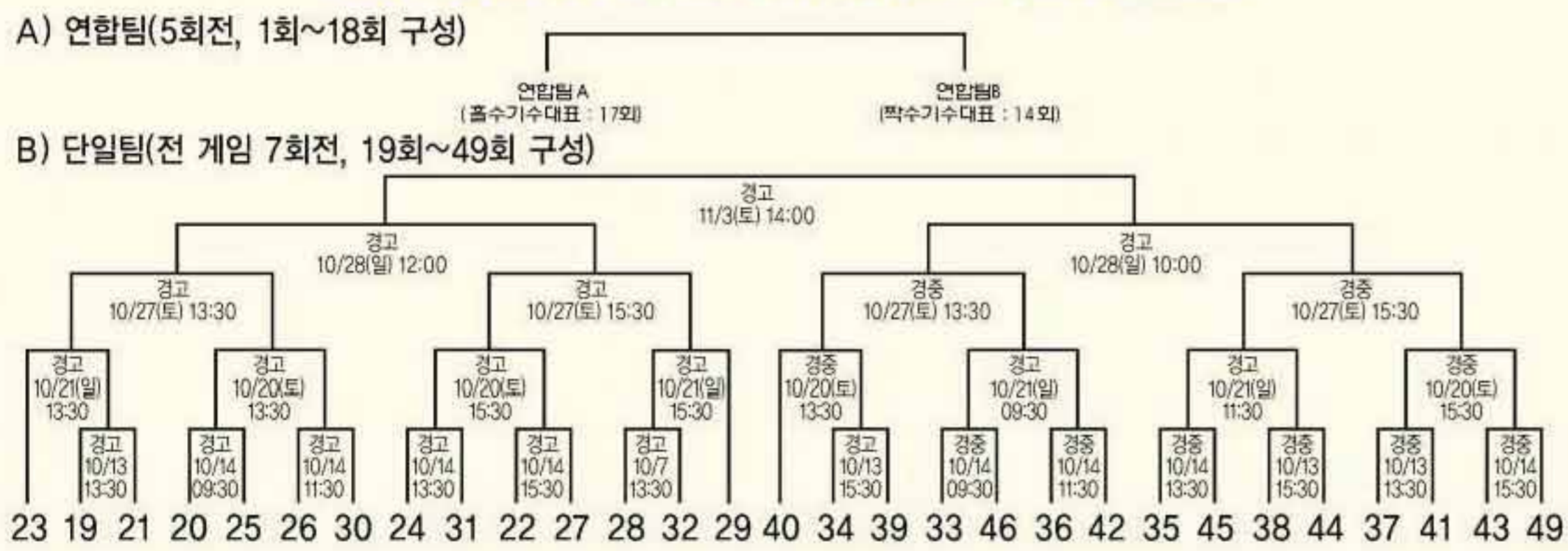
특히 출신원상(아웃코스 5번 홀) 수상자에게는 트로피 및 부상과 유재진 동문(22회·부산스타자동차 회장)이 제공하는 벤츠 승용차를, 최고 행운권 추천자에게는 혼마 드라이버를 시상한다.

용마바둑회장배(개인전) 바둑대회 - 11/25

한편 동호회 모임 활성화로 용마산악회와 쌍벽을 이루는 용마바둑회는 지난 6월 24일(일) 동창회장기 쟁탈 제7회 기별대항 대회를 가진데 이어 개인전으로

용마바둑회장배 대회를 오는 11월 25일 중앙바둑센터(중앙동소재 대림빌딩 4층)에서 갖기로 하였다.

외장기쟁탈 제39회 기별야구대회(2007본부) 대진표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주식회사 부산스타자동차

과장 오용승 46회
전화 010 6500 6404

살며 사랑하며

아직도 운전면허가 없느냐고, 원시인이라고 친구들이 놀려댈 때도 굳건히 버티던 내자였다. '뭇' 따는 게 아니라 '안' 따는 거라고, 내자는 지구에게 해 줄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그것뿐이라고, 제법 잘난 척하며 둘러대곤 했다. 그런데 사실 내자는 '뭇' 따는 거였다. 수련의 할 때, 시간 있을 때는 돈 없어서 뭇 땀고, 수련의 마치고 취직하여 있을 때, 돈 있을 때는 시간 없어서 뭇 땀다. 아니, 그것도 순 핑계다. 솔직히 내자는 겁나고 싫었던 거다. 초보운전자를 친절하게 배려하지 않는 '길'의 논리가 겁났고, 마치 그 길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난폭운전·위험운전으로 여성운전자를 희롱하는, 일부 불지각한 남성들의 태도가 싫었다.



그랬던 내자가 시골로 이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운전면허를 따는 일이었다.

'운전 경력 1년이면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른다' 고들 한다. 개구리 울음이 적 생각 못한다고, 왕초보 표지판을 단 자동차가 느림보 운전은 하면, 표정부터 간사해지는 요즘의 나를 보니 딱 맞는 말이다. 운전대만 잡으면 은근한 경쟁심이 발동하고 참을성도 현저하게 줄어든다. 어느새 길의 논리에 길들여져 가는가 싶어 스스로가 마땅찮다.

집 사람과 길 사람

집과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반된 원리로 운영된다는 것, 운전을 하면서 새삼 깨달았다. 집은 안전과 평안을 의미한다. 집에 들어서면, 약할수록 더 챙겨주고 살뜰히 보살피 주리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반면에 집 밖을 나서면 운동 불안하다. 크고 비싸고 빠른 차들이 작고 값싸고 느린 차들을 위협한다. 강할수록 살아남는다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길이다. 인생이란 길을 가다보면 얼마나 많은 위협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자기 아내를 가리켜 '집 사람'이라고 하는 남자들이 예전에는 못마땅했다. 집 사람은 무엇보다도 '살림' 하는 사람이다. 살림이란 생명을 살림을 의미한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서, 날마다 살림에 힘쓴다. 그래서 '집 사람'을 아내, 즉 '안 해'라고 한다. '집 안의 해'라는 뜻이다. 집 안의 해가 되어 집 안을 비추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집 사람이다. 그런 집 사람이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고 지배하기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죽임'에 협력하는 길 사람보다 얼마나 더 가치로운가?

그런데 여기, 평생을 길 위에서 살았지만, 끝내 길의 논리를 따르지 않은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나 부처와 같은 성인이다. 예수나 부처와 같은 성인은 길을 '걸은' 사람이었지, 길에서 (차를 타고 '달린' 사람이 아니었다. 길 위에서 만난 무수한 사람들에게 예수나 부처와 같은 성인이 전한 도(道)는 생명 살림, 곧 구원이었다. 예수나 부처와 같은 성인은 참 아름다운 살림꾼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묵묵히 걸을 뿐, 결코 길을 소유하지도, 장악하지도 않았던 예수나 부처와 같은 성인에게서 새로운 길의 원리를 배운다.

- 남상경(29회 · 대구 유명한의원 원장)

용마산악회 제2차 경부합동산행

- 전국 250여 용마가족모여 성황 이뤘
- 동창회장기 등반대회 11월 11일

본부 동창회 동호회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용마산악회는 지난 9월9일(일) 경북 안동소재 학가산(해발 882m)에서 2007년 제3회 정기산행(총 31차)겸 제2차 경부합동산행을 가졌다.

전국 각지에서 250여 동문들이 참가하고 본부 하영수(17회 · 한국지공공공업 대표) · 재경 구준욱(11회 · 진 협화화학(주) 진무이사) 산악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본부 신남석 산행대장(21

회), 오기득 부대장(23회), 재경 이재동 산행대장(23회)의 리드로 전주마을을 출발, 마당바위, 신선바위, 동학가산성터를 지나 송신탑 코스를 밟으며 일정상 유선봉을 지나쳐 정상인 국사봉에 올랐다.

산행을 마친 후 온천욕으로 피로를 푼 일행은 안동시내 소재 행복웨딩뷔페에서 저녁식사 겸 단합회를 가지며 추석 전 성묘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산행



출발시 집합, 이동 등에 있었던 약간의 고생(?)을 한잔 술로 날려버렸다.

한편 용마산악회는 2007년 제4회(총 32차) 정기산행 겸 동창회장기 등반대회는 오는 11월11일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갖기로 결정하였다.

제39회 기별야구대회 대표자 회의 개최

- 제49회 동기회 첫 신고식
- 제14회, 17회에게 도전장

본부 동창회가 주최하고 경야회(경고졸업 야구선수 모임 · 회장 조흥기 · 22회)가 주관하는 제39회 기별야구대회와 관련하여 각 기수별 대표자 회의를 지난 9월 12일(수) 부평동 소재 구포집에서 가졌다.

이길상(6회) 경야회 고문을 비롯하여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대회 계획안과 1,080만원 규모의 운영예산에 대한 심의 · 통과에 이어 대진표 추첨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아직 동기회가 결성되지 않은 제49회 최진영(한영



회계법인 회계사, 김학균(홍아다이아 대리) 동문이 대표로 참석, 49회 동기들이 이번 기별야구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여 열렬한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앞으로 제49회 동문들은 금년 기별야구대회 참여를 계기로 빠

른시일 내에 동기회를 결성하여 적극적인 동창회 활동을 하기보 내부적으로 결의했다고 한다.

한편 연합팀 게임에서 홈 · 짝수 기수를 구분하여 경기를 가지는 본게임과는 별도로 14회와 17회가 단일팀으로 한판 승부를 펼칠 계획을 세워 그 결과가 주목되었다.

작년 제17회 동기회가 단일팀으로 출전, 통합 연합팀과 경기를 가진데 대해 제14회가 자극을 받아 평소 '야구하면 14회'가 빠질 수 없다고 제17회에 도전장을 던져 이번 경기가 성사되었다.

화랑대기 야구 준우승

10회 연장전, 부산고에 아쉽게 석패

경남고가 지난 7월 28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야간경기로 열린 제59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주최 부산일보사) 결승에서 연장 10회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부산고에 4대5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을 하였다.

지난 2001년 제53회 대회 때 결승에서 맞붙어 대회 사상 처

음 재경기를 치르는 최고 명승부를 펼쳐가며 마침내 경남고에 무릎을 꿇은 영원한 맞수 부산고와의 이날 경기 초반은 완전한 경남고의 페이스였다. 1회 1사2루 때 장성우의 우전 안타로 선취점을 뽑고 이어진 1사 1.2루에서 신민기가 2루타를 때려 3-0으로 앞서나갔다.

7회까지 경남고에 끌려 다니던 부산고는 8회 하준호의 구위가 떨어진 틈을 타 볼넷, 실

책 등으로 3-4 뒤집기에 성공하였으나 9회초 투수의 폭투로 다시 4-4 동점을 만들어주었다. 10회 들어서 경남고는 1사2루 등 득점의 기회가 있었으나 후속타 불발로 실패하여 마침내 10회 말 '바가지 안타'로 점수를 내주고 말았다.

이날 결승전에는 500여명의 경남고 재학생들이 600여명의 선배 동문들과 함께 열띤 응원을 펼쳐 선 · 후배가 '야구를 통하여 하나'되는 아름답고도 귀중한 시간을 공유하였다.

'2007년 용마의 밤'

1. 일 시 : 2007년 12월 7일(금) 오후 6시30분

2. 장 소 : 서면롯데호텔 3F 크리스탈볼룸(051-810-5220~6)

※참가비 없음, 기념품 증정

"많은 이들이 참석하여 행운상 타자"

마·창 지역 동창회 하계수련회

- 삼겹살파티로 수련회의 진수 느껴

마산·창원지역 동창회는 지난 9월2일 덕유산 일대에서 2007년도 하계수련회를 가져 단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김우홍 회장(22회·경남프뢰벨 대표)을 비롯한 회원 40여명은 오전 8시30분 마산시청 앞에서 출발, 덕유산 관광단지에 도착하여 케이블카를 타고 향적봉에 올라 가벼운 산행을 하면서 운무로 가득한 산 경치를 구경하였다. 하산 후에는 덕유산 휴양수련원에서 시원소주와 더불어 본격적인 삼겹살 파티를 가지며 수련회의 참 묘미(?)를 만끽하였다. 식사 후 강알칼리성의 물 좋은 온천이라 이름도 좋은 '백두산 천지온천'(경남 거창 소재)에서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오후 6시 10분 귀갓길에 올랐다.

이번 행사에도 이경재(13회), 여환부(21회), 조호재(21회) 동문 등이 협찬을 아끼지 않았다.



■경수회도 출조

한편 마·창지역 경수회(회장 민형기·20회)는 지난 9월9일 마산시 구산면 원전 앞바다로 출조를 나가 도다리와 모래문지기를 2시간 동안에 250여수나 낚아 올려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의 성과를 올렸다. 최대 월척(?)은 45cm급 문어로서 김재근 동문(19회·동마산병원 내과원장)이 들어 올렸다고 한다.

울산지역 용마청소 합동체육대회



지난 10월 14일 울산지역 동창회 용마가족들은 부산중고 동문 및 가족들과 함께 작년 이어 올해에도 시내 대화강고수부지 야구장에서 2007 용마·청소가족 합동체육대회(양교 동창회 공동주최)를 열어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박홍조(경고22회)·이용하(부고19회) 양교 울산회장이 공동대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행사는 양교의 지역회 고문단과 회장단, 본부 동창회 허홍욱 사무총장(19회)과 정갑윤 국회의원(23회), 박맹우 울산시장(25회) 등을 비롯하여 지역내 동

문·가족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천으로 인해 일부 게임이 취소되기도 하였지만 야구(5:1), 족구(2전1승)에서 모두 승리한 용마는 다음 게임인 줄다리기에서 넓은 마음으로 양보를 하였다.

이날 MVP는 야구대회의 신성우(39회) 동문이 차지하였으며, 이벤트 행사로 진행된 미스경남중고 선발대회에서는 나이지리아 파견근무 중 휴가차 이날 귀국한 이석우 동문(24회) 부인이 차지하였다.

이날 동문가족들은 소고기 국밥과 전어회로 꾸민 오찬을 가졌으며 특히 신준호(14회·대선주조 회장) 동문이 협찬한 시원소주 20box를 주부홍보사원이 직접 출장을 나와 서빙을 하여 갈채를 받았다.

양교 지역회장의 러브샷으로 이날 모든 행사를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를 UBC울산방송에서 취재하여 개회식, 야구시합 장면 등이 방송을 탔다는 후일담.

졸업 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제11회 동기회

졸업 기념 50돌을 맞은 제11회 동기회 회원 일동은 지난 10월10일 모교를 방문하여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교정을 둘러보며 신선한 감회에 젖어 50년 전의 까까머리 학생 시절을 그리워하였다.

오전 11시 서울 42명, 부산 78명, 총 120명의 동기생들이 부산역 광장에 집결하여 버스를 타고 모교에 도착한 동기생들은 말끔히 단장된 교정을 둘러보면서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졸업 당시의 교정 모습과 비교해가면서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감탄을 쏟아내기도 했다.

故 김택수 동문(1회)을 기념하는 건물인 국산기념관에서 가진 공식행사는 김종석(24회) 경남고 교장의 환영사에 이어 부산의 이명(반용아동교육복지사업추진회 회장), 재경의 이상석(세무회계사) 동기회장

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이어서 재학생 간부 소개와 모교 발전 및 격려금 전달(경증-200만원, 경고-300만원)후에는 모교 동창회 발전과 동기회원의 건승을 기원하는 뜻을 모아 모교에서 마련한 시루떡을 컷팅하였다.

백우청 동문이 선창을 한 교가제창을 끝으로 공식행사를 마친 11회 동문들은 다시 교내를 거닐면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이 교정을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각자 마음속으로 약속하였다.

오후 1시30분부터 빈락동 소재 다인회집에서 이병태(前 국방부 장관, 오원수(대한제강(주) 회장), 박희태(국회의원) 동문 등의 건배 제의로 시작한 오찬은 그야말로 어울림의 한마당이었다. 권주가를 부르며 술잔이 오가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인생 70, 연분이 분은 깊은 속마음도 서로 주고 받았다.

지난 50년 동안 사회 곳곳에 진출하여 슬한 도전과 시련을 겪고 당당한 모습으로



의 인사가 있었으며, 안강태(대선조선 대표이사·11회) 본부 동창회장이 국내외 총동창회원을 대표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안회장은 "우리 동기회의 행사에서 총동창회장의 신분으로 단상에 서게 되어 개인적으로 감개가 무량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동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아울러 안강태 동창회장은 평소 동창회 활성화에 수고가 많은 재경 권영철(오리엔트해운(주) 전부이사), 부산 김원형 동기회

고향으로 돌아온 노장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스킨십을 통해 서로를 확인하고 우정을 다지는 귀중한 시간을 가진 것이다.

특히 멀리 미국에서 온 추기석 동문(前 추월영 교장선생님 자제)과 조동준 동문은 "다소 무리해서라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오후 5시경 아쉬움 속에 연회를 마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두 자리 숫자까지만, 99살까지만 건강하고 멋진 삶으로 채워나가자"고 모두 입을 모아 외쳤다.

뉴욕의 14K 모임

뉴욕의 14K 모임에서는 지난 10월 4일~6일까지 2박3일간 하와이, 버지니아 등 미국 전역에서 모인 10여명의 동문들이 민발식 대장의 지휘아래 모임을 가졌다.

뉴저지 서북부의 아늑한 산골에서 만난 이들은 작년 모임에서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더불어 동문 가을골프대회에 참석하여 스코어 상관없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코스와 유연한 스윙을 즐겼다. 토요일 저녁에는 배광용 동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푸짐한 성찬과 앞새주목 목을 흠뻑 적시고 최수길 동문의 기타에 맞추어 교가와 응원가도 부르며 밤 늦게까지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즐기는 14K'들의 웃음 속에서 친한 우정과 행복을 확인하며 내년 만남을 기약했다.

미 남가주 동문회

미 남가주 동문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과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교와의 경부전 골프대회가 있었다.

첫 대회는 레크리에이션 파크에서 치러졌으며 회장단의 주선으로 사상 처음 경남여고 골프멤버들이 일부 참여하여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두 번째 대회는레이크우드 골프코스에서 약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이어 열린 길목식당에서의 시상식에서는 양교 동문들이 골프회의 발전을 위하여 즉석에서 많은 지원금을 기탁했다.



경팔회 8, 9월 모임 활발

산이 좋아서 산에 취한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는 초지일관 무더운 8월 한달도 매주 빠짐없이 산을 찾았다.

8월3일은 관악산(13명), 10일 북한산(16명), 17일 도봉산(17명), 24일 수락산(16명)이 올라 호연지기를 키웠다.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매월 갖는 정기모임을 9월부터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변경하였다.

경열회 9월 모임 이어져

8월 모임은 차기 모임의 활력을 위한 충전기를 가지느라 열지 않았다.

정우회(회장 정삼수)는 지난 3개월간 무더위와 우천으로 행사가 무산, 이번에는 평촌 중앙공원 테니스장으로 옮겨 6명이 기량을 겨루었다.

경북회는 회장, 총무가 불참한 가운데 13명 4개조로 나눠 자율적으로 경기를 치루었다.

제37회 신임회장 최재형

제37회 동기회는 지난 10월5일 서면 급행장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최재형(대우증권 구포지점장)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날 제37회 동문들은 그동안의 동기회 활동에 대해 재평가하고, 신임 최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더 일차고 내실 있는 동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다짐하였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우승자 장기상, 메달리스트 김연수, 준우승 차동열, 3위 이근수, 니어리스트 김영덕, 통기스트 한윤구, 행운상 김창덕 동문 등이다.

한편 강남화요회(회장 김해룡)는 무더위로 인해서 미진했던 모임에 20명이나 참석하였고, 폭서에 노고가 많으셨다며 영양보충을 위해 회장님의 배려로 특별영양식으로 오리훈제 고기와 구기자, 당기 등 12종류의 한약재가 들어간 약주로 모처럼 주머니 반겨니 즐거운포식을 했다.

김남일(25회) 학교정책실 지방교육지원관



서울대학교 사부국장 김남일 동문이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지방교육지원관에 임명됐다.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사 22회로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대한민국의학원 사무국장,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서울대학교 사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경재(26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동문이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에 발령됐다.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매사추세츠대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사 22회로 1980년 경남교육청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주 유네스코대표부 교육관,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원정책심의관,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지방교육지원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승무(26회) 충북대학교 사무국 국장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승무 동문이 충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남 함안이 고향인 이 동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교육부 교육정보화국장, 교육정책지원관,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이사관(한국교육개발원 파견), 서울대학교 사부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엄상현(29회)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엄상현 동문이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에 취임했다. 서울대 사범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교육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사 28회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학행정지원과장, 교육부 학술학사지원과장, 국제교육협력담당관, 기획홍보관리관, 장관 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권영길 동문(15회) 세 번째 대권 도전



본부 명예부회장이자 권영길 동문(사진)이 지난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노당 대선후보 선출대회 결선투표에서 17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됐다.

권 후보는 후보수락연설에서 "비정규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사람중심의 경제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유세 신설 △무상교육·의료 △1가구1주택 법제화 △국공립대 통제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권 동문은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 농대, 서울신문기자 출신으로 96년 민주노동당 대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노동계의 중심인물로 떠올랐다. 97년 진보단체가 결성한 '국민승리 21'의 후보로 처음 대권에 도전하였으며 2002년 민노당 후보로 두 번째 대선 도전한 뒤 2004년 민노당 사상 처음으로 경남 창원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박성조 동문(9회) 베를린 자유대교수 동아대 석좌교수로



세계적 석학인 박성조 동문(사진) 베를린 자유대 교수가 2학기부터 동아대 석좌교수로 고향 후배들을 가르친다.

서울대 BK(두뇌한국) 21 초빙교수 및 울산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할 때 국제 정치 관계 및 경제 사회문화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연구업적과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박 교수는 2학기부터 동북아국제대학원 국제학과에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동북아지역연구」와 「지역연구 방법 특론」 등의 교과목을 강의한다.

장승재 동문(12회) 울산시 문화상 수상



울산용마 편집장인 장승재 동문(사진)이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제10회 울산시 문화상(문학부)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3일 울산 KBS홀에서 수상식을 가졌다.

장 동문은 일찍이 1960년에 자유분방 제1회 신인작품상과 196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됨으로서 문단에 등단, 현재까지 활발한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부산MBC 작가를 거쳐 울산MBC와 포항MBC에서 PD, 편집보도국장,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와 부산가톨릭문인협회 회원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조정민 동문(23회) 목회자로 변신

MBC TV 뉴스메이크 앵커로 활약했던 조정민 동문(사진)이 목회자로 변신



했다. MBC보도국 워싱턴 특파원, 사회부장 등을 거쳐 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그가 4년전 돌연 사표를 내고 미국 보스턴의 고든콘웰 신학대로 떠났다가 최근 귀국해 서울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 동문은 이르면 이달중 목사 안수를 받고 본격적으로 목회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운택 동문(25회) 동국대 교수로 임명



시인이자 극작가, 연극연출가 등을 넘나드는 '문화 게릴라' 이운택 동문(서울예술단 감독)이 8월 24일 동국대 예술대학 연극학부 부교수로 임명됐다.

이 동문은 경남고 졸업 후 한국방송통신대 초등교육과(2년제)를 이수한 것이 학력의 전부여서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이다. 서울예술전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균관대 등에서 강사와 객원교수를 지낸 적은 있지만 대학의 정식 교수로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양훈 동문(28회) 한국방송대상 수상



지난 9월 7일 KBS부산방송총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양훈 동문(사진)이 부산향토문화 콘텐츠 제작과 보급에 각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협회가 주최하는 제34회 한국방송대상의 '지역방송인' 부문 방송대상을 수상했다.

부산에서 갈매기통신 방송을 위시하여 향토문화 책자를 발간하기까지 끊임없는 열성과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KNN 방송국 주최 골프 최강전

김영목(23회) 동문 메달리스트

지난 9월 12일(수) 봉도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 KNN방송국·한동홍딩스 주최 부산·경남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에 참가한 김영목 동문이 총 70타(2언더)를 쳐 메달리스트 상을 받았다.

부산·경남지역 고교 동문들이 동창회 별로 4명씩 1팀으로 구성, 총 38개교가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우리 동문 대표팀은 비록 입상권 내에는 들지 못했지만 김영목이 최상의 성적을 내어 타 학교 동문들의 부러움을 받았으며, 유재진 동문(22회·스타자동차 회장)이 혼인원 상으로 벤츠 B200을 제공



▲대회 참가선수(왼쪽부터) 김영목(23회), 송재성(28회), 유재진(22회), 이부식(23회)

제49회 동기회 발족 - 본부에서 동기회기 기증



지난 10월 14일 제49회 동기회는 부산 토성동 소재 고기전문 음식점에서 발족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동창회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기별야구대회 첫 참가를 계기로 하여 동기회를 결성키로 하고 준비 작업을 하였던 대표실무자들을 비롯한 25여명의 동기들은 이날 43회와의 경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장소로 이동하여 본부동창회 허홍욱(19회) 사무총장, 황유명(29회) 사

무국장이 참석하신 가운데 뜻 깊고 감격스러운 동기회 발족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초대 회장은 최진영(한영회계법인 회계사), 국장은 김화균(동아타이어 근무), 박상연(범호ENG 근무) 동문을 선출하였으며,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단 구성은 신임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사회:이충현)

신임 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기회 결성이 다소 늦었지만 어느 기수보다도 적극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막내기수로서의 진면목을 보여 주자"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동기들간의 우호증진을 강조하였다.

한편 본부 동창회에서는 동기회기를 제작하여 격려금과 함께 전달하면서 제49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다.

구덕 산우회, 몽블랑 등정



주로 모교 산악반 출신으로 구성된 구덕산우회의 안형수(24회), 이승

원(25회), 남기태(31회), 전성울(35회) 등 4인은 지난 7월 14일부터 12일간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과 네발의 아마다블라, 마차푸차레와 함께 세계 3대 비봉(尖峰)으로 꼽히는 바타호른을 등반 및 등정했다.

시차적응 문제 등 만만찮은 악조건들을 극복하고 몽블랑정상에 선 이들은 등정 축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또 다른 정상을 가슴에 담았다.

동기회 소식

제14회 동기회 대마도 관광



제14회 동기회는 재경동기회와 합동으로 대마도 관광을 계획하였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부산팀은 8월 31일, 서울팀은 9월 6일 각각 2박3일의 일정으로 행사를 열었다.

각 팀은 부산 제1부두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씨플라워호를 이용, 이즈하라항에 도착하여 등산과 관광팀으로 나누어 일정을 진행하였으며, 산지의 싱싱한 해산물로 꾸민 만찬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다. 마지막 날에는 유적지와 한국전망대 등을 둘러보고 무사히 부산항에 도착하여 간단한 뒤편이를 마치고 해산하였다.

제16회 송정 캠프 성황리에 마쳐

올해도 제 16회는 송정에 모였다. 옛날 학창시절 광안리 해변 백사장에서의 해양훈련을 잊지 못해 해마다 여름이면 송정 해변에 모이기 시작한

지 벌써 28년이다. 서울과 부산에서 70명이 넘는 동기 친구들이 모여 첫날(7월 31일)은 '이리야' 캠프장에서, 이튿날(8월 1일)은 해변횃집에서 떠들며 부딪히는 소주는 상자로 세어야 했으며, 특히 경부친선 바둑대회를 이벤트로 개최해 한껏 열기가 고조되었다. 홍용찬 재경동창회장이 민신웅 사무총장을 대동해 참석하여 친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2박3일의 일정을 마친 8월 2일 낮 모두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내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았다.

제18회 연양 가지산 가을야유회



제 18회 동기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9월 30일 경남 연양 가지산(석남사 뒷산)으로 등산 겸 부부동반 야유회를 다녀왔다. 남두진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70여명(부인 23명)이 참석했다. 일

행은 오전 8시 한양프라자 앞에서 김길제 고분이 협찬한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출발, 연양 석남사에 도착한 후 산행을 시작하였다. 시작부터 급경사의 산행이었지만 산행대장 손천익 동기 이부인 독려 하에 전원이 무사히 산행을 마치고 박도형 동기가 운영하는 멋진 카페에서 멧돼지 바베큐와 비빔밥을 먹으며 노래와 장기자랑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남두진 회장이 기념 타올 100장을 협찬했다.

제24회 통영에서 경부합동 하계수련회



제 24회 동기회는 8월 25~26일 1박2일로 서울·부산지역 등 동문가족 100여명이 모여 통영에서 하계수련회를 열었다. 숙소인 마리나 리조트에 도착하여, 상견례와 만찬으로 이어지는 단합대회를 시작으로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우정을 나누었다. 통영에서 수산업업을 하는 김덕룡 동기가 우렁찬 목소리를 내며 100kg이나 제공해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긴 밤이 지나 통영 앞바다의 떠오르는 해를 마주하고 기제도의 해금강과 외도를 구경하면서 특별한 정을 나누었다.

제31회 북·동부하계단합대회



제 31회 동기회(회장 정정남)는 지난 8월 25~26일 1박2일 일정으로 송정해수욕장에서 '한여름 밤의 낭만축제'를 펼쳤다.

이번 축제는 북·동부 하계 단합대회로서 25일 토요일 오후 4시 동기, 가족 등 30여명이 송정해수욕장 2호탈의실 앞에서 본격적인 수련회를 시작하였고, 바쁜 토요일 오후에 북·동 부모모임을 축하해 주기 위해 조현우, 김영수, 홍성수, 이희암, 김득선 동기 등이 늦게 합류하였다.

무더운 여름밤 송정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잊혀져가던 옛 추억의 노래에 젖어 가슴 설레게 한 아름다운 밤이었다.

홍 마 춘 추

학가산(鶴駕山) 산행 후기

배 성수 · 제33회



33산우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9월 9일(일) 용마산악회에서 경북 안동 소재 학가산(鶴駕山/882m)을 2007년 제 3회 정기산행(총31차, 경부합동2차)으로 갖는다는 공지를 보고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가슴이 설레었다.

당일 아침 생수2병과 김밥 두 줄을 점심요기로 준비하고 오전 7시50분에 부산진역 앞에 주차된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다. 차에 오르니 수많은 선배에 비하여 단출한 후배들의 규모를 보고 잠시 상념에 잠기었다. 일요일이기도 했지만 한가위를 앞 둔 벌초차량들로 중앙고속도로임에도 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11시40분경 목적지에 도착했다.

최대한 산에 가까이 가려는 인간의 욕심을 질타라도 하는 것처럼 마을의 좁은 농로는 문명의 이기를 버리고 직접 두 발로 입산하기를 번지지 알려주었다. 산을 타는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아스팔트길을 30여분 오르니 천주마을 표석이 애절한 나그네들을 묵묵히 맞이했다.

이때가 12시20분경이다 보니 시간 맞추어 식사를 드시는 선배님은 물론 동기들도 도착하지 않은 서울동문들이 탄 버스를 기다리면서 간단한 먹거리로 분위기를 전환하였다.

소나무 아래에서 삼삼오오 모여 먹거

리와 간단한 막걸리, 포도주 등이 잠시였던 길 위 여정의 긴장과 수고스러움에 활력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오후1시경 서울동문들이 도착하여 주최측의 간단한 산행코스 안내를 받고 나이와 권세와 부귀영화와 시름을 뒤로 한 채 곧바로 입산을 시작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서울동기를 남겨 두고 오르는 발걸음이 아쉬움과 기대감으로 와 닿았다.

선배님들을 먼저 보내고 우리 동기들은 제일 나중에 천주마을을 출발했다. 조금 오르니 천주마을 주민들에 의해 마당바위라 불리어지는 장정20명이 있을 수 있다는 큰 바위를 지나갔다. 그곳에 기수는 알 수 없었지만 앉아계셨던 우리 선배님 내외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40여명이었다. 제한된 공간이었지만 동기애를 다지기 위해 하나의 자리를 마련한, 아마 23기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선배님들께 부러운이 일어났다.

자리는 비좁아 보였어도 고등학교 때 금정산성으로 소풍갔던 분위기로 세월의 시계를 되돌린 것 같았다. 10년 후 우리 동기들도 저런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까? 동기들을 위해 누군가의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또 그렇게 동기들을 위해 활동하

고 있는 많은 동문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싶다.

우리는 좀 더 산을 올라 길가에 물이 흐르는 평지에 자리를 깔고 점심을 마쳐 갈 때쯤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서울동기들이 도착하였다. 이심전심으로 맞잡은 손에서 무한한 사랑이 흘렀다. 항상 자기 요기꺼리 이상으로 다양하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오는 훈훈한 마음을 지닌 동기들에게 잠시나마 감사의 뜻을 속으로 전하며 주변을 정리했다.

선선바위를 지나 안동의 2개 산성(山城)중 하나인 동학가산산성 터를 지나며 세월의 무상함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 세월 여기에 사셨던 선조들이 힘들었지만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셨기를 상상해 보았다.

동기내외들이 홀로 또는 같이 산성터 옆에 쌓여진 돌무더기 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돌을 하나씩 쌓았던 이들의 바램과 성취가 사진 앵글속의 이들에게도 전해지길 잠시 빌어보았다. 계속 정상으로 오르는 데 길가의 소나무들이 우람하면서 선비의 자태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청아한 소나무 정기도 오늘 참석하신 선후배 동문들이 흠뻑 마셔 가시길 바래보았다.

정상아래 송신탑을 지나니 평생 벼슬길을 거부하고 자연을 벗하고 살았다는

어느 선비가 이름 지은 신선들이 흥겹게 놀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 유선봉이 보인다. 전체 일정상 유선봉에 오르지 않고 조금 더 걸어 60도 경사의 철계단을 30여 개 디딘 후 오늘 산행의 목적인 국사봉에 오르니 방금 전까지 남아 있던 시름마저 잊고 바위가 되고 소나무가 되고 하늘의 구름이 되었다.

하산 길에 발 빠른 동기들은 1400여년 전의 수행처인 능인굴에 들러 생명을 마시고 굶까지 오지 못한 동기들을 위해 물병에 담았다. 중간에 잠깐 쉬면서 능인굴의 샘물을 마시니 그 물맛뿐 아니라 서기가 느껴졌다. 펜팔로 당재로 내려와 나락이 무르익는 소리가 나는 논들 사이로 난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로 길을 한참 걸으니 출발지 천주마을이 고개 너머로 보였다.

다행히 마을초입까지 차량이 지원되어 시내로 목욕 나가는 무리 무리의 동문들을 보듯 태웠다. 간단한 목욕과 식사와 반주로 여정을 마치면서 최고참 6기 선배님과 57기 후배와의 40여년 세월을 하나로 묶어내는 용마산악회의 창조적 수고로움에 감사를 느꼈다.

다음 용마산악회 산행에서는 이 즐거움과 자부심을 더 많은 선후배동문 내외분들이 공유하길 바라며 후기를 맺는다.

제 6 외

△박명석 = 8월 27일 별세. 삼성서울병원
△안표순 = 9월 14일 별세. 삼성서울병원

제 7 외

△배을호 = 9월 6일 별세. 고신의료원
△변봉규 = 9월 9일 별세. 울산중앙병원
△노영현 =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161-6번지

제 8 외

△정혜근 = 7월 19일 노원예술문화회관 리더스 클럽에서 피아노 연주회

제 9 외

△김태영 = 부산시 남구 용호3동 38-17 (1층)
△장병국 = 6월30일 딸 수경양 결혼. 오션타워
△최현오 = 밀양시 교동 1227 한마음APT 102-1001
△황영선 = (본사)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하성빌딩 6F 공중실 ☎808-3450 (지사)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동주빌딩 14F ☎506-7226
△김홍국 = 8월8일 모친 별세
△박성조 = 9월1일 (베를린 자유대학 종신교수) 동아대학 석좌교수로 부임. HP.011-9063-8541
△신용익 = 10월 6일 차남 성기균 결혼
△김기준 = (주)현지INT회장. 인테리어와 해외여행 관계로 많은 분들을 위해 봉사. ☎(02)2087-8000
△김동룡 = 전 조흥은행 상무이사.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반가운 소식
△권양순 = 고 김광우 교수의 부인. 두 번째 수필집 「추억 그리고 흔적」을 지난 9월12일 초판 발간
△김 청 = 이북 5도청 합남지사. 이북 5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서주환 = 건교부 국장퇴임후 목사로 활약 ☎(031)384-0336
△배건섭 = 전 대한일보 편집부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무악현대APT 111-202 ☎(02)730-1057
△안병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2동 450 시영APT 2-801 ☎(02)3461-2710
△이춘식 = (주)이레 메디칼 대표. 「금비누」 생산. ☎(02)2651-8335 HP.011-9912-8335
△차상구 = 동양수산(주) 사장. 부산시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 시티 130-2302 ☎(051)612-6622

제 10 외

△이윤식 = 7월 1일 별세

△김평순 = 7월 28일 아들 결혼. 압구정동 소망교회 선교관
△김용진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36 동신APT 4동 1101호
△박세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2-5 1층. 샘의료복지재단 한국본부
△고광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43-23번지 오케이산장 201호
△이의근 = 8월 24일 별세. 압으로 투병 중 미국 마이애미에서 타계

제 12 외

△이규만 = 9월 11일 차녀 결혼. 서울 영락교회 선교관. 사무실 대표번호 변경 ☎(02)3487-7222. 사장실 직통번호 ☎(02)3487-7010
△서진홍 = 9월 9일 아들 결혼. 서울 리즈칼튼호텔
△이승태 = 9월 27일 아들 결혼. 서울 명성교회
△최수행 = (재)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 회장 취임. HP. 010-8291-3104
△곽한기 = 부산시 서구 부용동 2가 95-1 ☎(051) 257-9754
△구봉근 = 부산시 남구 용호1동 176-8 LG메트로시티 208-801 ☎(051)612-4882
△김광수 = 경기도 고양시 행신2동 무원마을APT 501-1104 ☎(031) 979-2464
△김장욱 = 태성기업(주) 대표이사 취임. (055)632-1117
△김중성 = 동의의료원 원장 취임 ☎(051)850-8702
△장지흠 = 서울시 관악구 봉천9동 벽산블루밍APT 105-1604 ☎(02)6264-8384
△조영건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협성APT 104-607 ☎(055)345-4695
△최병준 = 부산시 남구 용호1동 176-8 LG메트로시티 215-2101 ☎(051)949-0089
△장승재 = 울산시문화상 수상. 10월3일 오후 6시 KBS홀

제 13 외

△남영기 = 7월 7일 아들 결혼. 광주 운암교회
△이용웅 = 7월 7일 모친 별세. 동아대학병원
△이창열 = 7월 14일 차남결혼. 양재동 온누리교회
△유수중 = 8월 8일 별세. 좋은강안병원
△성무용 = 8월 2일 별세. 서울 보라매병원
△허갑도 = 8월 6일 부산노인병원에 취임
△손재우 = 9월 8일 별세. 봉생병원
△김홍철 = 9월 8일 딸 결혼. 대한통운 웨딩홀
△백명조 = 9월 11일 모친 별세. 동인노인병원
△임성화 = 9월 30일 장남 결

어디서 무엇을

혼. 삼성동 공항터미널역시장

<동기회 사무실 이전>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31-15 서면 동원오피스텔 1107호 ☎051-462-5913

제 14 외

△김영주 = 7월 16일 인정원 (월남쌈밥집) 개업. 부산 연제구 연산5동 703-9호. ☎(051)853-7979
△김의웅 = 7월 21일 모친 별세. 동아대병원
△최건차 = 7월 24일 빙부 별세. 경찰병원
△신일수 = 8월 19일 부인 별세. 장지는 부산 기장
△권 명 = 8월 25일 딸 결혼. 서울 로얄호텔
△허인구 = 8월 25일 차남 결혼. 군인공제회관
△이동영 = 8월 26일 차남 결혼. 웨딩의 전당
△이문기 = 8월 31일 모친 별세. 일산 백병원
△박 실 = 9월 8일 폐암 초기 수술로 인해 입원. 국립암센터 527호실 ☎(031)920-0527
△김장균 = 9월 15일 아들 결혼. 진주시 포시즌 웨딩홀
△김일암 = 9월 28일 빙모 별세. 보정장례식장
△심말용 = 10월 2일 별세. 일산병원
△조윤현 = 10월 13일 아들 결혼. 탑웨딩갤러리

제 15 외

△이명수 = 경남 합천군 합천읍 교동 353-3 강산해오름 @ 1-602
△하장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롯데 낙천대APT 202-1002
△이양춘 = 8월 13일 부친 별세. 언양 보람병원
△박영무 = 9월 1일 부인 별세.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정옥 = 9월 27일 빙모 별세. 연화장(경기도 수원)
△남기주 = 11월 17일 장남 결혼. 역삼동 성당 오후 3시
△이준기 = 8월 31일 모친 별세. 일산 백병원

제 16 외

△배정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6가 121-607 현대 뉴스타 B/D 905호
△강경필 = 중국에서 일시 귀국하여 친구들에게 인사 전해오다.
△유정호 = 미국 시카고 거주 (의사). 지난 7월 일시 귀국하여 동기들과 오찬, 숙부 유기준 박사(전 서울대 총장) 전기 10권 전달
△박문규 = 지난 7월 5일 불의

의 사고로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다.
△강진중 = 7월 15일 아들 결혼. 진주 포시즌 웨딩홀
△배철호 = 7월 30일 부친 별세. 부산 좋은강안병원
△하주열 = 8월 12일 모친 별세. 함양 성심병원
△권우열 = 9월 8일 아들 결혼. 부산센텀호텔
△유영명 = 9월 20일 모친 별세. 부산영락공원
△신준삼 = 8월 25일 장남 결혼. 명일동 명성교회
△심현일 = 9월 17일 별세. 평택 굿모닝 병원
△박종영 = 9월 30일 모친 별세. 현대 아산병원
△박수면 = 10월 7일 아들 결혼. 서울 신라호텔
△강동관 = 10월 6일 아들 결혼. 부산롯데호텔
△배정희 = 10월 20일 딸 결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
△송자문 = 10월 27일 아들 결혼. 부산 오션타워

제 17 외

△김용길 = 7월 7일 차남 결혼. 충신교회 본당
△허진행 = 7월 18일 모친 별세. 아산병원
△윤수성 = 8월 25일 모친 별세. 서울 선한이웃병원
△장의구 = 마산시 완월동 29-24. HP. 011-9530-6629
△남궁성은 =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 새병원개원준비단장 발령
△배민부 = 10월 7일 별세. 해운대 신시가지 성가정 성당 영안실
△조윤희 = 10월 13일 딸 결혼. 여의도성당
△주상한 = 10월 20일 딸 결혼. 호텔농심 대청홀
△최생이 = 10월 21일 딸 결혼.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

제 18 외

△강수철 = 7월 30일 모친 별세. 동강병원
△정문교 = 8월 3일 모친 별세. 경남 밀양 영남병원
△최관철 = 8월 13일 모친 별세. 남천성당
△이원행 = 8월 18일 장녀 결혼. 서울 로얄호텔
△김희중 = 8월 26일 장남 결혼. 해운대그랜드호텔
△전병희 = 9월 8일 차남 결혼. 삼천포 해상관광호텔
△김대현 = 9월 16일 장남 결혼. 부산 롯데호텔
△손영중 = 9월 11일 모친 별세. 여의도 성모병원
△배세원 = 부산중학교장에서 정년퇴임
△박순정 = 영남중학교에서 명예 퇴임
△강인섭 = 9월 1일자 경남교육연수원 원장으로 영전. ☎(055)279-9000
△서부원 = 9월 6일 한샘고시

텔 개원. 동아대학교 앞 육교옆
△손영중 = 9월 11일 모친 별세. 여의도 성모병원
△강인섭 = 9월 1일. 경남교육청 교원 연수원장 부임
△박종문 = 10월 6일 차녀 결혼. 남포교회(잠실 아시아선수촌APT 내)
△박도형 = 10월 13일 장녀 결혼. 그랜드호텔 22층 스카이라운지
△조창흠 = 9월 28일 별세. 포항 e병원
△강현수 = 9월 30일 모친 별세. 서울 고려대학병원
△이상원 = 10월 3일 모친 별세. 동아대학병원
△김광호 = 11월 10일 장녀 결혼. 해운대 우동 성당
△신민섭 = 11월 18일 장남 결혼. W웨딩 크리스탈룸
△구영근 = 10월 11일 빙모 별세. 강남 서울의료원
△고정대 = 10월 13일 모친 별세. 부산의료원
△장수일 = 10월 13일 모친 별세. 행복한 병원

제 19 외

△강도상 = 9월 9일 장녀 결혼식. 부산 LIG생명빌딩
△김재근 = 10월 6일 장남 결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5층 그랜드볼룸

제 20 외

△허규판 = 대구 지역회장. 삼성산업 사무실 이전.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280-4 신원 BD 3층. ☎(053)722-2000

제 21 외

△송원경 = 7월 11일 「삼성RT동부지사」개업.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702-9 뉴그랜드레포츠 809. ☎(051) 851-3595 팩스(051)851-3596. HP. 011-874-3803
△이재호 = 7월 29일 빙모 별세. 중앙대병원
△장 호 = 7월 31일 모친 별세. 현대아산병원
△손원조 = 8월 1일 부친 별세. 부산의료원
△이석희 = 9월 8일 아들결혼. 건설회관 2층
△고택렬 = 9월 9일 삼녀 결혼. GS타워
△박건관 = 9월 12일 부친 별세. 울산 동강병원
△이재홍 = 9월 15일 장남 결혼. 서울 베일리하우스
△이일상 = 9월 15일 장남 결혼. 해운대 백스코 초이스홀. HP. 011-562-0571
△최민석 = 마산시 월포동 1-1 벽산 블루밍 101동 302호. ☎(055) 223-3559
△김인묵 = 10월 6일 장남 결혼. 고려대대 학우회관
△오성모 = 서울시 구로구 개봉2동 현대APT 119-1602

<6면에서 받음>

- △이호수 = 용인시 수지구 성북리 726 LG APT 302-604
- △정연호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 중앙하이츠 빌리지 102-1504
- △한광수 = 호성화학 대표,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대우 트림프월드 마린 A동 3002호
- △강경규 = 10월 20일 차남 결혼, 마산 사보이호텔
- △김 규 = 11월 3일 장녀 결혼, 공군회관

제 2 2 외

△하창봉 = 7월 19일 부친 별세

제 2 3 외

△정갑윤 = 7월 9일 사무실 이전 개소식, 울산 중구 학산동 175번지 중원빌딩 4층

제 2 4 외

- △조백인 = 7월 2일 빙모 별세, 한양대학병원
- △하영봉 = 7월 19일 부친 별세, 현대 아산병원
- △허구연 = 7월 19일 모친 별세, 현대 아산병원
- △임철호 = 7월 22일 모친 별세, 서울 삼성의료원
- △서우일 = 8월 8일 부친 별세, 브라질
- △우동철 = 8월 26일 장녀 결혼, 서울가든호텔
- △이종협 = 법무사 사무실 개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9-1(수영구청 앞) ☎(051)900-7193
- △정기호 = 9월 1일자 부산대학원장으로 발령 ☎(051)510-1350
- △박문규 = 9월 15일 장녀 결혼, 한국과학기술회관
- △송수건 = 9월 18일 모친 별세, 분당 제생병원
- △김경남 = 10월 5일(금) 장녀 결혼, 남서울교회
- △노상우 = 10월 6일(토) 아들

- 결혼, 백스코 웨딩홀
- △최연호 = 미국 연수를 마치고 9월 26일에 귀국, HP, 016-762-3192
- △하희조 = 9월 27일 부친 별세, 분당 서울대학병원
- △조병제 = 9월 29일 부인 별세, 서울 삼성병원
- △김용식 = 10월 11일 부친 별세, 아산병원 영안실
- △유우학 = 10월 20일 딸 결혼, 서울 강남 삼성호텔

제 2 5 외

- △이석희 = 9월 8일 아들 결혼, 건설회관
- △이상식 = 「온천꼬지」개업, 온천장 입구, ☎(051)557-1538
- △전용태 = 「전용태한의원」개업, 부산시 남구 용호3동, ☎(051)624-3741
- △최철국 = 9월 15일 김해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 △허실권 = (주)이지컴 대표이사 취임
- △최차환 = 10월 21일 아들 결혼, 백스코 2층

<동기회 사무실 개소>

부산시 동구 초량3동 국제오피스텔 1412호

제 2 6 외

- △김상현 = 8월 18일 부친 별세, 감전동 부산장례식장
- △김경익(미진실협 대표) = 8월 22일 모친 별세, 서울 강북삼성병원
- △성백원 = 9월 8일 장녀 결혼, 울산 문수컨벤션센터
- △김정원 = 11월 4일(일) 장녀 결혼, 성동웨딩문화원 오전 11시

제 2 7 외

- △이기우(전, 중소기업청 차장) = 창원대학, 창원전문대학 겸임교수 부임, 현, 한나라당 정책조정실 소속(7월)
- △정현우 = 8월 13일 별세, 강남 성심병원

어디서 무엇을

△김태우(부산시 변호사회 회장) = 8월 22일 모친 별세, 서울 강북삼성병원

제 2 8 외

- △임광수 = 마산수산 해양청장 부임(7월)
- △전원경 = 7월 1일 울산석유화학 공단협의회 공단관리부장으로 승진.
- △박철원 = 8월 6일 한일합섬 대표이사 취임, ☎(02)791-1003
- △김태완 = 8월 18일 부친 별세, 감전동 부산장례식장
- △신익모 = 8월 19일 부친 별세, 양산장례식장
- △이흥오 = 8월 20일 모친 별세, 사직동 부산의료원
- △안준모 = 8월 25일 모친 별세, 서울 삼성의료원
- △정점득 = 9월 3일 빙모 별세, 서울대학병원
- △이양훈 = 9월 7일, 제34회 한국방송대상의 「지역방송인」부문 방송대상 수상
- △허문도 =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 법명은 선웅
- △정영주 = 9월 16일 모친상, 동아대학병원
- △이우사 = 10월 6일 장남 결혼, 서울 교육문화회관

제 2 9 외

- △권오영 = 7월 7일 신축 이전 개원식, 효성시티병원 (척추, 관절 전문병원),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옆
- △이영태 = 효성시티병원 이사로 재직
- △박동일 = 7월 20일 빙모 별세, 부산 동의의료원
- △백성욱 = 7월 24일 모친 별세, 이대 동대문병원
- △이재윤 = 7월 30일 별세, 동의의료원
- △김세원 = 8월 16일 모친 별세, 좋은 강안병원
- △이승우 = 8월 31일 「부동산

- 학」박사학위 취득, 춘천 강원대학교.
- △이인성 = 8월 22일 부친 별세, 분당 제생병원
- △엄상현 =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부임(8월)
- △최정식 = 9월 20일 부친 별세, 부산전문장례식장
- △류영이 = 9월 25일 빙모 별세, 경남 진주전문장례식장
- △이영인(서울대 환경대학원장) = 10월 2일 모친 별세, 부산 성모병원
- △박영기 = 안과 개업, 지하철 2호선 신천역 2번 출구 새마을시장 입구 ☎(02)423-2277

제 3 0 외

- △박상혁 = 7월 6일 부친 별세, 수서 삼성병원
- △이일우 = 7월 15일, 경북 영덕 「대계 성」 개업, 010-3112-7785
- △허선행 = GS건설 상무, 7월 18일 모친 별세, 현대 아산병원
- △김규성 = 7월 19일 백스코 센텀 호텔 개업
- △임영수 = 7월 19일 빙부 별세, 부산 영락공원
- △김경남 = 7월 25일 우리는행 서초구청지점장으로 승진
- △전택만 = 7월 25일 빙모 별세, 메리놀병원
- △박동규 = 7월 27일 부인 별세, 강북 삼성병원
- △유정동 = 7월 31일 모친 별세, 좋은 강안병원
- △심봉석 = 8월 1일 이화의대 동대문병원 병원장 취임.
- △최상호 = 8월 7일 모친 별세, 동아대병원
- △정예성 = 8월 19일 부친 별세, 이대 목동병원
- △노영범 = 8월 30일 빙모 별세, 고대 안산병원
- △김환식 = 9월 3일 모친 별세, 충남 공주 장례식장
- △조순영 = 9월 5일 부친 별세, 부산 좋은 강안병원
- △김순구 = 9월 6일 빙모 별

- 세, 부산의료원
- △양웅식 = (주)리시스템 전무 취임, ☎(02)860-9505, HP, 010-4344-3858
- △이호걸 = 경남도청 경제통상국 소비자보호센터 부임
- △우경하(프로야구 한화 이글즈 타격코치) = 10월 11일 빙모 별세, 서울 아산병원

제 3 1 외

- △김태주 = 10월 2일 빙부 별세, 동아대학병원
- △김홍두 = 10월 5일 모친 별세, 동아대학병원

제 3 3 외

- △류홍영 = 7월 7일 모친 별세, 창원 한마음병원
- △이 훈 = 7월 8일 모친 별세, 침례병원
- △송인광 = 7월 10일 부친 별세, 기장병원
- △이태균 = 7월 28일 모친 별세, 양정성당
- △박경호 = 7월 28일 빙부 별세, 서울산 보람병원
- △황경원 = 8월 20일 부친 별세, 정다운병원
- △김정욱 = 8월 22일 모친 별세, 서울 강북 삼성병원

제 3 4 외

- △강용진 = 8월 2일 부친 별세, 부산 영락공원
- △김한조 = 10월 5일 모친 별세, 동아대학병원
- △정현욱 = 8월부터 (주)에너지이저 본부장으로 서울에서 근무, 사무실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26 선릉빌딩 204호 (주)에너지이저 사무실 ☎(02)557-8580 HP, 011-889-2315
- △한봉수 = 사무실 이전, 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 174-9 골드코스트 601호 성일통상(주) ☎(051)746-1981 HP, 011-761-2997
- △이철수 = 8월 14일 부친별세

<8면에 계속>

'글마술' 에의 초대



용마가족 여러분을 회보의 집필자로 모십니다, 시·수필·여행관광기·취미생활수기·학창시절 추억담·시평·제안 등 빛이든 자료 사진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O/T 411호 TEL : (051)245-7551~3 FAX : (051)245-7550



회보 광고로 홍보하면 사업번창과 역량결집 위한 '황금알' 을 낳습니다.

각 동기회·직능회·국내외 지역회와 사업하는 용마들의 광고협찬은 알찬 회보를 만드는 활력소입니다. 성원 바랍니다.

회비 납부 현황

(2007.10.15 현재)

1. 회장단 및 본부이사
(2007년도분)

- 회 장 : 안강태(11회) - 500만원
- 자문위원 : 김병기(11회) - 100만원
- 부 회 장 : 강수현(12회) - 200만원 김길제(18회) - 200만원
 이용흡(19회) = 200만원 김두영(20회) = 200만원
 이재호(21회) = 200만원 박재상(22회) = 200만원
 박흥조(22회) = 200만원 유재진(22회) = 200만원
 김진철(25회) = 200만원 김두천(26회) = 200만원
 박상호(26회) = 200만원 이원철(28회) = 200만원
 최강호(28회) = 200만원 김용채(29회) = 200만원
 윤성덕(30회) = 200만원 박명진(33회) = 200만원
 김두섭(34회) = 200만원 정성윤(39회) = 200만원
 임태영(40회) = 100만원
- 명예부회장 : 김영오(12회) - 100만원
- 감 사 : 박철병(23회) - 100만원 김태우(27회) - 100만원

(2006년도분)

- 회 장 : 안강태(11회) - 500만원
- 자문위원 : 강진평(10회) = 100만원 김병기(11회) = 100만원
 이명(11회) = 100만원
- 부 회 장 : 강수현(12회) = 200만원 이상택(13회) = 200만원
 박병선(14회) = 200만원 손부흥(15회) = 200만원
 김길제(18회) = 200만원 이용흡(19회) = 200만원
 김태신(20회) = 200만원 이재호(21회) = 200만원
 박재상(22회) = 200만원 박흥조(22회) = 200만원
 유재진(22회) = 200만원 김진철(25회) = 200만원
 김두천(26회) = 200만원 박상호(26회) = 200만원
 이원철(28회) = 200만원 최강호(28회) = 200만원
 김용식(29회) = 200만원 윤성덕(30회) = 200만원
 최거훈(30회) = 200만원 박명진(33회) = 200만원
 이진호(34회) = 200만원 장인화(35회) = 200만원
 정운성(35회) = 200만원 정성윤(39회) = 200만원
 임태영(40회) = 100만원
- 감 사 : 방방우(10회) = 100만원 박철병(23회) = 100만원
 김태우(27회) = 100만원

2. 동기회(2007년도분)

기수	본부납입금	모교이구 후원금	계	2006년도 미납입분
6			-	
7			-	200,000
8			-	
9			-	
10	600,000	300,000	900,000	
11			-	
12	900,000	500,000	1,400,000	
13			-	
14	900,000	500,000	1,400,000	
15			-	800,000
16	1,200,000	800,000	2,000,000	
17	1,200,000	800,000	2,000,000	
18	1,200,000	800,000	2,000,000	
19			-	2,500,000
20			-	
21			-	1,000,000
22			-	1,000,000
23			-	1,000,000
24	1,500,000	1,000,000	2,500,000	2,500,000
25	1,500,000	1,000,000	2,500,000	
26			-	1,600,000
27	1,500,000		1,500,000	
28			-	
29	1,500,000	1,000,000	2,500,000	
30	1,500,000	1,000,000	2,500,000	
31	1,500,000	1,000,000	2,500,000	
32	1,200,000	800,000	2,000,000	
33	1,200,000	800,000	2,000,000	
34	1,200,000	800,000	2,000,000	
35			-	2,000,000
36	1,200,000	800,000	2,000,000	
37			-	2,000,000
38			-	1,400,000
39			-	1,400,000
40	900,000	500,000	1,400,000	
41			-	700,000
42			-	700,000
43			-	700,000
44			-	700,000
45			-	700,000
46			-	700,000
47			-	700,000
48			-	700,000
총	20,700,000	12,400,000	33,100,000	23,000,000

* 본부 납입금 = 본부 이사회비+용마의 밤 협찬금

<7면에서 받음>

△권장우 = 8월 16일 부친 별세, 사상 삼신전문장례식장

제 35 회

△황영길 = 7월 1일 부친 별세, 창원 한마음병원
 △김중호 = 7월 24일 모친 별세, 덕천동 부민병원
 △김대영 = 8월 2일 모친 별세, 부산 영락공원
 △박동렬 = 9월 22일 모친 별세, 경남 남해 추모 누리 장례식장

제 36 회

△박철중 = 9월 7일자 경상일보 논설위원으로 영전.
 △박호성 = 9월 20일 부친 별세, 주례 삼선병원

제 37 회

△김철민 = 10월 7일 빙부 별세, 메리놀병원
 △김성태 = 10월 10일 부친 별세, 부산대학병원

제 39 회

△조용성 = 8월 13일 모친 별세, 부산대학병원

<은사님 소식>

이창갑 은사님께서 8월 1일 별세하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정독실 후원금 내역

(2007.10.15 현재)

- △남진현(19회)=300만원 회)=각 30만원
- △이재호(21회)=200만원 △오강욱(10회)=25만원
- △서수홍 임종원(이상 16회) 제16회동기회(회장 김조) 구본능(21회) 박철병(23회) 김종석(24회) 박상호(26회) 제31회동기회(회장 정정남) 김종명 이진호(이상 34회) 제34회동기회(회장 이성엽) 기득동 문희(회장 양건종·19회)=각 100만원
- △안형모(24회) 이상원(26회) 김홍종 주종목(이상 28회) 양승오(29회) 임의섭(4회)=각 50만원
- △용마테니스클럽(회장 김한원·20회) 문섭제(24회)=각 30만원
- △박동오(18회) 경문회(회장 김한원·20회) 최창희(21회) 김경남(24회) 이규생 추기복(이상 26회) 김경수(27회) 박임철 정대화(이상 28회)=각 20만원
- △하영수(17회) 김한원(20회) 김동원(22회) 김인철 부흥서 배종갑 손세영 안상수 장원서 차동렬 최승국 김승탁 한승철(이상 24회) 고석훈(26회) 안준모(28회) 황동하(36회) 한병제(54회)=각 10만원
- ▲합계 : 2,335만원

<모교 정독실 꾸밈 후원>

경남고 우수 재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하여 과학관에 3개반의 정독실(옛 지습실)을 꾸미고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책·결장 1조 25만원, 총 3,500만원 소요 예산 필요
 -후원에 주신 동문·기수·지역 동창회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 영원히 고마움을 표시 할 것임

※1계좌 : 10만원

※계좌번호 : 부산은행 029-01-029648-5
 경남고등학교정독실기금 김종석

※성명·기수 필히 기재요망

교장실(김종석·24회) 243-7754·행정실 248-2186

GOLF

동창회장배쟁탈
제10회 용마골프대회



●일 시 / 2007년 10월 29일 (월) 10:30 첫 Tee Off
 ※1,5,10,15홀 4곳에서 동시 출발(샷건방식)

●장 소 / 부산 C. C. Tel.051-508-0707

●참가인원 / 220명 예정(55개조)

●참가신청 / 1) 각 동기회 회장 및 국장
 2) 각 동기회 골프회 회장 및 국장
 3) 본부동창회 사무국
 Tel.051-245-7551, Fax.051-245-7550

●대회구분 / 1) 기별대항 단체전 (스트로크 방식)
 2) 개인전 (뉴페리어 방식)
 3) 시니어부 개인전 (1회~15회)
 4) 용마가족 여성부 개인전 (동문 부인)

주최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